

2020년 12월 1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반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제공일: 12월 13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2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진

□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김현수 장관, 이하 '중수본')는 12월 13일,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N8형)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.

* 8차 발생(나주, 육용오리)에 따른 방역기관(전남 동물위생시험소)의 역학 농장 검사 결과 해당 농장 2곳에서 H5형 AI 항원 검출시(12.12)부터 농장 출입 통제, 역학 관련 농장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 조치 중

□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.

-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
-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
- ③ 발생지역인 전남 영암군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

□ 중수본 관계자는 “농장의 소독·방역 실패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”임을 강조하며,

○ “농장주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 차량·사람 소독, 축사 출입 최소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